

2002년 제7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참가기

최승언¹, 임인성²

¹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²한국천문연구원

한국천문학회 산하 한국천문올림피아드는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 2001년(제6회) 참관에 이어 2002년(제7회)에는 처음으로 3학생이 참가하였다. 총 10개국, 1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팀은 러시아, 인디아에 이어 종합 3위를 하였다.

경쟁시험은 3종류인 theoretical, observational, practical rounds로, 고난이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배점은 각각 48점, 20점, 20점이다. Junior 나 Senior 그룹에 관계없이 시험의 수준은 우리나라 현 중등학교, 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정을 포함하지만 어떤 분야는 대학의 일반천문학 수준을 뛰어 넘으며, 채점관계상 이론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.

각 국가의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Jury meeting이 구성되고, 여기서 채점, 평가, 사정 등이 이루어진다. 또한 본 올림피아드의 발전 방향, 차기 개최지 결정, 참가자를 위한 모든 규칙 변경 등과 같은 주요 결정 사항도 여기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진다.

이 밖에 국제올림피아드와 관련한 여러 주요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.